
서 평

덕윤리의 르네상스

송 유 레

(경희대 철학과)

1. 들어가는 말

‘덕윤리’(virtue ethics)는 현대 규범윤리학(normative ethics)에서 의무를 중시하는 접근법과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접근법과는 달리, 행위자의 덕 또는 훌륭한 성격을 강조하는 접근법을 일컫는다.¹⁾ 서양의 윤리학자들은 덕윤리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찾고 있다.²⁾

이러한 ‘고대적’ 접근법은 오랫동안 의무윤리를 대표하는 칸트의 윤리학과 결과윤리를 표방한 공리주의의 그늘에 가려 있었으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대략 앤스콤(G. E. Anscombe)의 논문 “Modern Moral Philosophy”(1958)을 기점으로,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대체할 제 3의 윤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덕윤리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서양

1) Rosalind Hursthouse(1999), *On Virtue Ethics*, Oxford (1999), “Introduction”, 1쪽. Cf. Rosalind Hursthouse, ‘Virtue Ethics’(2003),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Edward Zalta, <http://plato.stanford.edu/entries/ethics-virtue/>.

2) Roser Crisp(1998), “Virtue Ethics”,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London (1998), 622쪽.

고대 덕윤리에 대한 체계적 관심이 증폭되었고, 현대 윤리학의 문제의식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재해석된 고대 덕윤리는 더 이상 ‘고대’ 덕윤리가 아니라, 이미 ‘현대’ 덕윤리로 변모되었다. 덕윤리는 지금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그것은 이미 서양고대를 넘어 중세와 근대의 덕이론으로 이론적 기반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양의 전통, 특히 유교윤리에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황경식 교수는 동서 전통 윤리를 관통하는 덕윤리의 현대적 의의를 천착한 저서 『덕윤리의 현대적 의의. 의무윤리와 결과윤리가 상보하는 제3윤리의 모색』을 내놓았다.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역자이자 사회윤리의 권위자로 이름난 황경식 교수는 이번에는 정의(正義)가 아니라 덕(德)을 윤리담론의 전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저자에게 덕에 대한 관심은 정의와의 작별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정의의 문제가 결국 “정의로운 사람 만들기”로 귀결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6쪽). 이에 따르면, 사회 정의도 중국적으론 유덕한 시민의 도덕적 실천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저자가 덕윤리를 단지 개인윤리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사회윤리의 지평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저자의 사회윤리학적 문제의식은 그의 덕윤리 연구가 지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강점이다. 저자는 윤리의 유형과 사회 구조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 사회 구조에 적합한 윤리 유형을 모색한다. 그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윤리를 구축하기 위해 덕윤리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1부 ‘현대사회와 덕윤리’에서는 윤리체계와 사회구조의 상관성에 의거하여 왜 오늘날 다시 덕윤리가 요청되는지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의무윤리와 덕윤리가 상보하는

통합윤리를 모색한다. 나아가 동양의 전통 윤리와 근세 이후 서구 윤리가 뒤섞여 있는 한국의 윤리적 현황을 고려하여, 동서 윤리의 비교 연구를 위한 서설을 제시한다. 그 밖에 정서주의(sentimentalism)를 표방한 미국의 덕윤리학자 슬로트(M. Slote)와의 대담이 포함되어 있다. 제 2부 ‘유교윤리의 현대화’에서는 서구 덕윤리 담론에 기초하여 유교윤리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덕과 규칙의 관계, 인간 본성과 수양론, ‘德’의 의미의 원천과 변천, 자유의지와 결정론, 충효사상의 현대적 의미 및 유교윤리의 현대화 과제를 다룬다. 제 3부 ‘동서 덕윤리의 만남’에서는 동서 윤리의 비교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면서 군자와 시민의 만남, 중용론과 궁도(弓道)의 비유, 도덕적 실패, 도덕 교육론을 논구한다. 끝으로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 개념이 비판적으로 고찰된다. 부록으로 세 편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이 실려 있다 (1부 5장, 2부 4장, 3부 5장의 내용과 겹친다).

2. 왜 다시 덕윤리인가? - 덕윤리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 서구 윤리학자들이 다시 덕윤리를 찾는 이유는 근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사회를 지배해 온 ‘의무윤리’(duty ethics)에 대한 불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무 윤리에 대한 불만 사항은 무엇인가? 황경식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417-420쪽), 첫째, 의무윤리는 어떤 행위가 의무로서 정당하고, 왜 정당한지를 밝히는 정당화 문제에 주력한 결과, 행위의 동기화(motivation)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 그리하여 의무윤리는 왜 우리가 종종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으로 옳기지 못하고, 설령 옳은 행위를 실천한다 해도 억지로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둘째, 의무윤리는 도덕적 행위의 다양성을 간과한다. 의무윤리는 도덕적 행위를 도덕적 의무사항, 도덕적 금

기사항, 도덕적으로 무관한 허용사항으로 삼분하는데, 이 구분에는 도덕적 권장사항, 가령 성인(聖人)이나 영웅이 행하는 의무 이상의 행위(supererogatory action)가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의무윤리는 도덕 평가에 있어 지나치게 행위 중심적이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 내적인 의도와 동기가 무시된다. 넷째, 의무윤리는 도덕을 일종의 규칙의 연역 체계로서 이해함으로써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 주체가 발휘하는 도덕적 창조성(moral creativity)을 질식시킬 수 있다.

저자는 특히 행위의 동기화 문제와 관련해서 고전적인 덕윤리의 장점을 인정한다. 그는 고전적 덕윤리에 기대어,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도덕적 실패의 원인을 의지의 나약 또는 자제력 부족('akrasia')에서 찾고, 옳은 행위를 하면서도 기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는 현상을 이성과 조율되지 않은 감정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제력 내지 의지를 강화시키고 감정을 조율하는 기능을 지닌 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3-24쪽).³⁾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현재 우리의 도덕 교육이 도덕적 사고력 개발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의지력을 강화하고 감정을 조율하는 중층적인 도덕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431-432쪽).

그런데 저자가 의무윤리의 난점을 지적하고, 덕윤리의 장점을 강조한다고 해서 고전적 덕윤리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덕윤리가 의무윤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덕윤리가 전통적 가치관과 관행을 공유하는 소규모 촌락 공동체를 사회적 기반으로 하는 윤리체계이기 때문에 현대의 자유주의적이고 가치 다원주의적인 시민사회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하지만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덕자가 자제력이 있는자와 다르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적 인간은 욕망의 갈등과 감정의 불화가 없기 때문에 자제를 할 필요조차 없다(41쪽).

맥킨타이어(A. MacIntyre)를 위시한 공동체주의자들은 최대윤리인 덕윤리를 자립적인 윤리체계로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구조를 그에 적합하도록 소규모 지역 공동체로 재편하는 길을 제안한다. 하지만 저자는 소규모 공동체들이 거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기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현대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사회를 해체하고 소규모 지역 사회로 재편할 혁명적 사회공학이 없는 한, 소규모 공동체를 사회적 기반으로 하는 덕윤리의 자립적 재할 프로젝트는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는 현실성이 희박한 발상이라고 평가한다(424-425쪽).

그리하여 저자는 결국 덕윤리와 의무윤리가 상호 보완하는 통합 윤리를 모색한다. 그런데 그가 구상하는 새로운 윤리에서 규범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윤리이다. 저자는 윤리체계와 사회구조의 긴밀한 상관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사회와 같은 소규모 공동사회에서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동체 성원간에 도덕적 이상주의를 지향하는 최대윤리가 요구되었으나, 근대 이후 이해관계에 따라 성원들이 이합집산하는 이익사회에서는 더 이상 최대윤리가 요구될 수도 없고 실행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도덕적 현실주의를 지향하는 최소 윤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395쪽, 422쪽). 하지만 저자는 의무윤리와 같은 최소윤리에 만족하지 않고, 최소윤리를 기초로 삼아 최대 윤리를 향해 그 지평을 점차 확대하는 중도적 도덕 체계를 제안한다(185쪽).

3. 돌아온 덕윤리? - 유교윤리의 현대적 의의

서구의 윤리학자들이 덕윤리의 귀환을 외치자, 그 메아리가 한국의 윤리학계에도 울려 퍼졌다. 그리고 덕윤리가 우리에게도 돌아왔다. 물론,

덕윤리에는 서양고대의 덕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고대의 덕윤리도 있다. 실제로 우리에게 ‘돌아온’ 덕윤리는 동양의 유교윤리이다. 사실, 유교의 덕윤리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해 온 유교윤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우리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에 머물지 않고 체계적인 학문적 관심이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자는 서양 현대 윤리학적 담론의 틀에서 덕윤리의 현대적 의의를 짚어보는 작업을 했으며, 나아가 덕윤리와 의무윤리가 상보하는 통합윤리를 ‘근대화’를 거친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현대 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윤리 모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저자는 서구 중심적 논의의 틀을 벗어나, 동양의 덕윤리를 대표하는 유교윤리에도 주목하여 그것의 현대적 의의를 탐색한다.

유교윤리에 대한 관심은 저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사회의 도덕적 현실에 대한 직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저자가 지적하듯이, 한국사회의 도덕적 현주소는 서구의 현대사회의 그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415쪽). 근대 이후 의무윤리가 지배해 온 서구와는 달리, 한국은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덕윤리 친화적인 상태”(416쪽)를 유지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상태를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상태의 긍정적인 면을 지적한다. 저자는 우리의 일상 언어와 도덕의식에 남아 있는 덕윤리의 유산이 도덕적 현실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여긴다(413쪽).

물론, 저자는 전통적인 유교 윤리로의 단순 복귀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유교윤리가 현대 윤리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하여 서구의 의무윤리를 대체할 수 있는 최상의 윤리라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류유리(劉余莉)의 유교윤리 해석에 대한 저자의 비판에서 확인된다. 류유리⁴⁾는 규칙 체계로서의 예(禮)

개념을 강조하면서 유교윤리가 단지 덕윤리가 아니라, 덕과 규칙의 통합 윤리라고 주장한다(246, 252이하). 이에 대해, 저자는 규칙윤리와 의무윤리의 친화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교윤리가 고대적 덕윤리와 근대적 의무윤리를 조절, 통합한 제3의 윤리가 아님을 밝힌다. 그는 유교에서 규칙은 덕의 실현을 위한 부차적이고 외면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276쪽, 282쪽).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유교에서 예(禮)는 덕의 외적 표현이거나 그 자체 덕으로 간주되므로 근대 의무윤리의 최소도덕을 구성하는 법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 결론적으로, 유교윤리는 원칙적으로 덕윤리에 머문다.

저자는 유교윤리가 오늘날에도 유효한 규범으로 살아남기 위한 길로서 현대화 방안을 타진해본다. 그가 제시한 유교윤리의 현대화 과제는 다음과 같다(395-407쪽). 첫째, 최대윤리에서 최소윤리로 전환해야 한다. 최대윤리는 윤리적 목표나 이념으로 남을 수 있지만, 최소도덕의 정립이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과제이다. 둘째, 동기윤리에서 결과윤리로 전환해야 한다. 유교윤리는 동기나 심정의 순수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저자는 동기의 순수성이 의사결정과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이나 행위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심정의 윤리에서 책임의 윤리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셋째, 행위 지향에서 규칙지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자는 유교윤리가 일의적이고 일관된 행위의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른바 도덕적 미결정성(moral indeterminacy)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미시윤리(개인윤리)와 거시윤리(사회윤리)의 단절성을 인정해야 한다. 저자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이 이상적 사회의 구현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유교적 입장을 비판한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는 유교의 덕치 이

4) Liu Yuli, *The Unity of Rule and Virtue: A Critique of a Supposed Parallel Between Confucian Ethics and Virtue Ethics*, Eastern Universities Press 2004.

상을 보다 현실적인 법치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05쪽).

실제로 저자는 셋째 과제, 즉 규칙 지향 윤리로의 전환은 유교윤리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유교윤리 내부에 규칙 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과제들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407-409쪽). 사실, 최대도덕이기를 포기하라는 지시, 덕치의 이상을 포기하라는 주문은 유교윤리이기를 그만 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유교윤리의 전면적인 현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것의 현대적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저자의 대답은 위에서 제시한 통합윤리의 일반적인 틀 내에서 주어진다. 앞서 보았듯이, 저자는 덕윤리와 의무윤리가 상호 보완하는 윤리체계를 모색한다. 따라서 의무윤리가 지닌 약점 내지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덕윤리에서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저자는 의무윤리가 사회의 공적 영역에 한정된 최소도덕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능력이 표현될 수 있는 다른 삶의 영역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말하자면 가정생활을 비롯하여 근린 생활, 친인척과의 광범위한 인륜생활, 취향이나 신념을 공유하는 단체 내의 생활 등에 유교의 덕윤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서구의 근대사회의 산물인 의무윤리가 법치사회의 확립이라는 아젠다와 맞물려 도덕 생활에서 기초가 되는 도덕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데 주력했다면, 덕윤리는 그러한 도덕적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도덕적인 권장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성인의 거룩한 행위나 영웅적 행위는 도덕적 의무는 아니지만, 도덕적 이상으로서 행위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영감을 줄 수 있다(456-457쪽).

그러나 저자는 “우리의 사회 윤리적 현실에서나 윤리교육에서” 성인 보다는 “도덕의 문턱”이 낮은 군자(君子)의 개념을 강조하자고 제안한다(399쪽). 그는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유교의 이

상주의와 낙관주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공허하게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도덕적 신사(moral gentleman)로서의 군자를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내세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여긴다(396-397쪽, 455쪽, 458쪽). 그러나 저자는 재치 있게 덧붙인다. “우리 사회는 아직 최소한의 도덕인 시민윤리도 확립되지 못하는 처지이고 보면 군자가 되는 목표는 아직 우리에게 아득한 이상이 아닌가 생각한다.”(458쪽)

4. 나오는 말

이 책은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국가 석학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집필된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자가 머리말에 밝힌 것처럼 40년 이상 숙성된 생각을 담고 있는 일생의 노작이다(6-7쪽). 저자를 소개하는 책날개에는 저자가 연구 경력에 있어서 전반기에는 정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윤리를 연구하는 데 몰두했지만, 후반기에는 동서의 전통윤리를 관통하는 덕윤리의 현대적 의의를 천착하는 데 몰두해 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이 책이 저자의 후반기 성과를 대변하는 첫 번째 저술로 나와 있다. 이 말은 저자가 덕윤리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약속과 다름 없으니,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다.

국내 학계에서 덕윤리는 아직까지도 생소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자로 장동익과 노영란을 꼽을 수 있는 정도이다.⁵⁾ 이 두 연구자는 모두 현재 영미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대’ 덕윤리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해 왔다. 황경식 교수는 이 책에

5) 장동익의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새 규범 윤리학으로서의 덕 윤리의 가능성」, 『철학』 제 68집 (2001), 285-306; 「의무 윤리학의 난점과 덕성 윤리학적 해결」, 『철학』 제 71집 (2002), 221-243. 노영란의 주요 논문들은 『덕윤리의 비판적 조명』, 철학과 현실사 2009에 묶여져 출간되었다.

서 그러한 논의의 틀을 넘어서 동서고금의 덕윤리를 폭넓게 다루었다. 그는 이 책에 실린 글 가운데 전공 분야가 아닌 주제를 다룬 글들은 공론장에 올리기에 다소 미흡한 시사나 착상 수준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6쪽), 그가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방법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도 현대 윤리학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황경식 교수는 ‘체계적인’ 관심으로 동서 고전에 접근하여 동서 윤리의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서양 현대 윤리학의 담론 틀을 가져와서 고전윤리에 대해 생산성 있는 논의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시도는 각기 동양 고전과 서양 고전에 매몰되어 자신의 연구 대상을 상대화해 보지 못하고, 그것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고심하길 미루어 온 고전학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이고, 현대 윤리학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동서고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연구 방식은 분화되고 전문화된 여러 철학 분야 간의 대화와 소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잘 수용된다면, 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서양 현대 윤리학의 담론 틀을 기본 틀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상이한 윤리학 담론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윤리적 문제들에 접근했는지를 비교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황경식 교수가 이 책에서 제안한 덕윤리와 의무윤리의 통합 윤리 모형은 한국 윤리학계에 새로운 연구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세부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그의 모형은 현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신중하게 검토될 가치가 있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저자가 구상한 통합 윤리는 거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사회를 위한 윤리 모형이라는 사실이다. 저자는 자본주의도, 자유주의도, 다원주의도 모두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적합한 윤리 체계를 모색

하고 있지, 그러한 현실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윤리 체계를 꿈꾸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저자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윤리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이미 다루어졌지만, 후속 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졌으면 하는 세부 주제들을 몇 가지 언급하겠다. 첫째, 덕윤리의 가장 중추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덕’(德) 개념이다. 저자는 덕을 (1) 행위 성향 내지 경향성(disposition)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2) 기술(skill)로 이해하는 입장, 마지막으로 (3) 성격의 특징 혹은 성품(traits of character)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구분하였다(21쪽). 그런데 세 가지 입장들에 등장하는 성향이 나 기술, 성격과 같은 개념들은 자명하지 않다. 가령, ‘성격’의 경우, 심리학계에서는 그것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다. 따라서 덕을 설명해 줄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 가지 입장들의 통합 가능성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유교윤리의 유산 가운데 저자가 특히 높게 평가하는 수양론(修養論)이다. 수양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셋째, 군자(君子)의 도덕적 결정과 실천적 정당화이다. 저자에 따르면, 모든 덕을 체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행위자인 군자(君子)는 의례적 규칙이 행위의 지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비상상황에서 자신을 실천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273쪽).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설명이 주어졌으면 한다.

끝으로, 이 책의 부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책의 제목은 『덕윤리의 현대적 의의. 의무윤리와 결과윤리가 상보하는 제3 윤리의 모색』이다. 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제로서 ‘의무윤리와 덕윤리가 상보하는 제3윤리의 모색’이 기대된다.⁶⁾ 하지만 실제 부제에는 ‘덕윤리’ 대신 ‘결과윤리’가 나와 있다. 서구 근대의 규범윤리를 특징짓는 ‘의무윤

6) 참고로 제 1부의 제 1장 제목은 ‘왜 다시 덕윤리가 문제되는가? 의무윤리와 덕의 윤리가 상보하는 제3윤리의 모색’이다.

리'(ethics of duty, duty ethics)에는 칸트의 의무론(deontology)과 공리주의의 목적론 내지 결과주의(consequentialism)가 포함된다. 부제에 언급된 '결과윤리'가 공리주의의 결과주의를 의미한다면, 의무윤리와 결과윤리가 상보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덕윤리가 결과윤리란 말인가?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학은 그런 식으로 해석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행복이 모든 행위의 최종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이 행위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는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도 일종의 결과주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저자는 이와 같이 이해했는가? 그렇다면 유교의 덕윤리는 어떤가? 저자의 답변이 궁금하다.